



미리 가본 영어 식민지 시대, '슬픈 모국어'의 처소 찾기



다섯 명의 학자가 달려들어 20년 후인 2023년 영어공용화가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영어가 지배하는 우리 사회의 벽화를 가상으로 그린 것이 《한국어가 사라진다면》이다. 이들은 '벽화'를 그리기 전 책 앞머리에 '슬픈 모국어를 위하여'라고 썼다. 그러므로 이 책의 주인공 격인 한국어의 운명은 당연히 오도가도 못하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 있다. 하지만 이야기는 진지하고, 전개는 빠르다.

'벽화'는 영어공용화 원년을 1장으로 설정한 다음 공용화 후 30년, 60년, 100년, 500년을 각 장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물론 그 정황은 모두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고, 그것이 언어에 관한 것인만큼 예측불허의 상황이 전개될 게 뻔한데도 다섯 학자의 글에서는 미확정의 리얼리티가 살아 숨쉰다. 그것은 우리네 사회를 지배하는 영어열풍과 함께 미국의 콕스 아메리카나 정책이 적어도 30년, 100년 후를 내다볼 수 있게 하는 예측기저로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영어공용화가 실시된다면 우선, 이 땅에 어떤 벽화들이 그려지게 되는가를 가상 팩트fact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2023년(시정곤 교수 집필) 2022년 12월 31일, 뉴스속보가 영어공용화 실시를 전한다. 이제 대통령 선서를 영어로도 해야 한다. 대통령이 영어를 잘하는가 못하는가와는 상관없다. 국회의원도 해외파가 득세할 거라는 전망이 대두된다. 공무원 사회는 이미 50퍼센트가 재미교포로 채워졌다. '우사모(우리말을 사랑하는 모임)'의 촛불시위가 광화문에서 열렸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모든 상점에서 달리는 공용화폐로 이용하기 시작한다.

2053년(정주리 교수 집필) 공용화 후 30년이 지난 10월 9일 세종한국어학교가 폐교를 선언한다. 10대, 20대들은 완전히 영어만 쓰는 세대로서 영어를 위한 힘으로써 한국어를 더 많이 쓰는 70대 이상 계층과 커뮤니티

케이션의 단절현상 발생. 우울증 노인 대거 등장. 미국식 제스처에 관해 공부하는 세미나가 직장마다 개설돼 인기를 끄. 할로윈데이 공식휴일로 지정. 미국인이 결혼상대자 선호도 1위로 부상. 40대 이상 시민의 42퍼센트가 영어로 이름을 개명.

2083년(장영준 교수 집필) 공용화 후 60년. 어머, 밥소사 등의 감정 표현들이 거의 사라지고 그 자리에 ouch, oh my god 등이 들어섬. 사투리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놀림을 받는 사례 증가. 사회 일부 부유층, 고급 영어를 위해 여전히 해외유학을 선호. 영어표현의 수준을 한단계 높였지만 문학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노벨문학상을 받지 못함. 어순이 영어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중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늘어남. 한국어는 완전히 박물관 언어로 전락.

2106년(박영준 교수 집필) 공용화 후 100년이 지난. 초등학교에서 중국어 정식과목으로 채택. 어느 노벨상후보 작가, 중국어 공용화 주장으로 물의를 빚음. 제주도 중국어 공용화 시범지역으로 지정. 영어공용화가 만사형통이라고 여겼던 인식에 대한 반성 대두. 미국방언협회, '2112년의 말'로 CHINA를 선정. 중국어 공용화론에 대해 영어학회가 반대성명 발표. 일부 대학, 중국어 공용 캠퍼스 계획 발표.

2523년(최경봉 교수 집필) 500년 전 제작한 타임캡슐 발견. 학자들, 500년 전의 코리아 문화가 지금과 다르다는 사실 확인. 언어분석기를 이용, 한글이 영어 중국어와 30퍼센트쯤 유사함을 확인.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 코리아어를 하나의 언어로 인정.

이런 가상 팩트들은 부분적으로 우화성을 띠지만 그 위기의식의 단서로 제공된 갖가지 자료들은 지금 한국어가 처한 위상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 책에서 유심히 보아야 할 부분은 우리 언어학자들이 영어공용화에 이어 중국어 공용화 문제를 시나리오 위에 올렸다는 것이다. 한국어가 500년 후 타임캡슐에서 발견될 때까지만 해도 완전히 사라진 언어가 될 수도 있다고 가정한 이들이 중국어를 영어와 대등한 위치로 격상시킨 것은 중국의 정치경제적 힘의 확산을 감안한 것이다. 언어학자들의 눈에도 미국 다음으로 이 세상의 질서를 재편할 국가로 중국이 손꼽히는 모양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책의 성가는 예측이 들어맞느냐 안 맞느냐에 있지 않다. 저자들의 서술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언어가 의사소통의 도구만이 아니라 일상의 전 궤적을 뒤바꾸는 원소元素에 해당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동안의 영어공용화에 대한 저술과 그에 뒤이은 논쟁들은 삶과 유리된 상태에서의 가치판단과 정책적 진단, 민족자공심의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체감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책의 진정한 소용가치는 바로 이런 점에 있다. 복거일이 촉발한 영어공용화 논쟁은 그동안 언어학과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이해득실의 계수를 얻었지만 일반 독자들에게는 그 논쟁이 '그들만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논쟁'으로, 학문적인 것으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어공용화 문제는 학자나 정치세력의 시각에서 검토될 문제가 아니다. 1998년 조선일보가 실시한 영어공용화에 대한 인터넷 찬반투표에서 45퍼센트의 찬성의견이, 1999년 교육방송이 실시한 시청자 여론조사에서 62퍼센트의 찬성의견이 제시된 것만 보아도 영어공용화에 대한 시각이 매우 우호적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영어공용화 이후 우리 삶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 그래도 영어공용화에 찬성하는가'라고 묻고 싶어하는 게 이 책의 저자들 입장인 것 같다. 영어교육에 대한 열망만으로 영어공용화에 우호적 시각을 갖는 것은 낭만적인 선택일 뿐이라는 경고인 셈이다.

《한국어가 사라진다면》은 다섯 명의 저자가 쓴 글과 더불어 우리의 영어공용화 논쟁자료와 일본 대만 등의 영어공용화 자료, 영어공용화를 실시하는 나라들의 국제적 위상이 제시돼 언어학자들의 단순한 국어사랑과는 다른 현실감을 준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이들 학자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캐나다 사람들로 둘러싸인 채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퀘벡주 사람들의 예를 들며 '캐나다가 국가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실에 유의하라'고 충고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적어도 모국어를 슬프게 해서 안 된다는 우회적 주장이다. ㉞